

<div>2026년 7월, 출범 확정</div> <div>제물포구·영종구</div> <div>서구·검단구</div>		<div>보도자료</div>		<div>이제는 인천입니다</div> <div>2025 APEC INCHEON</div>	
		배포일자	2024년 5월 2일(목)		총 2 매
담당 부서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div>· 수소에너지팀장</div> <div>· 전기전력팀장</div> <div>· 담당자</div> <div>· 담당자</div>	이용배	☎440-4301
				임재청	☎440-4356
				이연정	☎440-4303
				송창진	☎440-4357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충전시설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 전기차 충전시설,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국비 100억 원 공모 -
- 2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충전 편의 제공 -

인천광역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1만 4,155대이며, 충전시설 설치 수는 6,578기다.

인천시는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6월 환경부 주관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참여한다. 공모액은 100억 원이며, 선정 시 국비 50억 원, 민간 사업자 50억 원 부담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 후보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설치 순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선정 후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올해까지 충전시설 설치 및 검수를 준비한다.

시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화물차 및 버스 차고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개방형 공용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소를 2025년까지 18개소, 2030년까지는 인천 전 지역에서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11개소 → ('24년 말) 16개소 → ('25년) 18개소

아울러, 시는 충전소 수를 확대 보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수소충전소 보급에 힘쓰고 있다.

초기 튜브트레일러에 수소를 저장해 운반하는 방식의 저장식 기체수소충전소 보급을 시작으로, 수소를 액체상태로 보관하는 액화수소충전소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수소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까지 확대된다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